

## 『醫學入門·傷寒篇』編制 중 正傷寒의 명칭, 병명분류의 기원과 그 후 변화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 The Origin and Changes of True-cold Damage(正傷寒) in *Introduction to Medicine*(醫學入門)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what the name and concept of true-cold damage in *Introduction to Medicine* were originated from, and to trace the origin and changes of categorization of it after the book.

**Methods** : Books concerned with true-cold damage were collected as many as possible, besides ones that *Introduction to Medicine* referred to, before the name, concept and categorization of it were searched and analysed.

**Results** : The concept of true-cold damage in *Introduction to Medicine*, which had come from *Lei Zheong Huo Ren Shu*(類證活人書) in Song dynasty, was more similar to one of cold damage in a broad sense. The name that Li Chan(李樾) appreciated, was derived from not *Shang Han Zhi Ge*(傷寒直格), but *Shang Han Zheng Zhi Ming Tiao*(傷寒證治明條) in Song dynasty. On the other hand, since Tao Hua(陶華) began to go into the details of cold damage in a narrow sense, most books had followed it. Whereas 11 diseases among 24 diseases of true-cold damage in *Introduction to Medicine* indirectly came from *Lei Zheong Huo Ren Shu*(12 diseases), 14 diseases among them were directly derived from *Shang Han Zheng Zhi Ming Tiao*(16 diseases) and 10 diseases were added containing syndromes of retained fluid and jaundice. The categorization in *Introduction to Medicine* scarcely adopted except *Donguibogam*(東醫寶鑑) and *Uimunbogam*(醫門寶鑑), while the categorization of true-cold damage in a narrow sense was mostly composed of 2 diseases, that is cold damage(傷寒) and wind damage(傷風).

**Conclusions** : Li Chan had fulfilled the total conditions in which the concept, cause, symptoms, prescriptions and prognosis of 24 diseases in true-cold damage were equipped, in order to build up the system and categorization of it. To our regret, his scientific outcome had been hardly referred after his book.

**Key Words** : true-cold damage(正傷寒), Li Chan(李梴), *Introduction to Medicine*(醫學入門), *Shang Han Zheng Zhi Ming Tiao*(傷寒證治明條), *Lei Zheong Huo Ren Shu*(類證活人書)

## I. 서 론

『醫學入門』 傷寒篇은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과 그에 각각 대응되는 처방이 실려 있는「傷寒用藥賦」로 구성되어 있다. 『傷寒論』 관련 다른 서적과 비교하면 그 編制와 분류방식이 독특하여 『醫學入門』 傷寒篇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傷寒論』은 역대 醫家들이 꾸준히 중시하여 그와 관련된 저작이 대략 500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傷寒論』 자체를 연구하다가, 明代 이후로 그 방향이 바뀌어 吳有性이 『傷寒論』의 錯簡을 주장한 뒤, 陳念祖, 包誠처럼 六經으로 분류(分經審證)하거나, 柯琴, 徐大椿처럼 處方으로 분류(以方類證)하거나, 錢潢, 尤怡처럼 治法으로 분류(按法類證)의 3가지<sup>1)</sup>로 발전하였다.

『醫學入門』 傷寒篇의 編制와 구성은 앞의 3가지로 분류하면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는다. 즉 「六經」은 分經審證에, 「五法」은 按法類證에, 「傷寒用藥賦」는 以方類證에 해당된다. 그 외에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은 병명 또는 症狀으로 분류한 것이다.

正傷寒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傷寒을 말한다. 類傷寒에 상대되는 말로서 『東醫寶鑑』에 霜降(10월 23~24일) 이후부터 春分(3월 20~21일)까지의 기간

에 寒邪를 받아서 병이 생긴 것을 正傷寒이라고 하였다.”<sup>2)</sup>고 하였으나, 이는 『類證活人書』를 인용한 것으로서 그 책 또는 『東醫寶鑑』의 인용문 모두에서 실제로는 ‘正傷寒’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醫學入門』 傷寒篇의 ‘正傷寒’을 『한의학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면, 李梴이 분류한 正傷寒 24종 병명과 서로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 中暑, 中暈, 寒疫, 溫疫, 風溫, 水證, 黃證 등은 협의의 傷寒에 해당하지 않는다.

李梴이 제시한 正傷寒은 이처럼 『한의학대사전』의 정의와 거리가 멀지만, 그가 생각한 正傷寒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醫學入門』 자체에서는 찾아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醫學入門』의 正傷寒의 명칭과 병명분류에 대한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正傷寒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醫學入門』은 조선시대에는 의과시험과 醫學取才의 講書로서 사용될 정도로 중요시하였고, 그 뒤 醫人들 사이에서 入門派가 생길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므로<sup>3)</sup>, 『醫學入門』을 임상에 활용했던 과거 醫家들은 正傷寒의 분류와 처방이 傷寒病을 진단,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醫學入門』의 분류가 후세 醫書에 인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正傷寒 분류를 현재 그다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醫學入門』 傷寒篇에 대한 연구로는 「六經」과 「初證」의 인용서와 『醫學入門』의 내용을 김 등<sup>4)</sup>과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649-1347, Fax : +82-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Received(26 April 2016), Revised(11 May 2016),

Accepted(12 May 2016).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周珉出版社. 2006. p.160.

2)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경담. 2010. NAVER 검색. [cited at 22th Februar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4737&cid=51276&categoryId=51276>

3)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

4) 김경석, 조학준, 김정범. 『醫學入門』 傷寒篇 중 「六經」條의

김<sup>5)</sup>이 비교한 바가 있으며, 『醫學入門』의 전체 編制를 차 등<sup>6)</sup>이 살펴보았지만, 正傷寒의 명칭, 개념과 병명분류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역대 문헌에서 기재된 類傷寒의 명칭, 분류방식, 병명분류를 陳<sup>7)</sup>이 발굴하고, 『傷寒雜病論』에서 내포된 類傷寒 관련 證治를 朱<sup>8)</sup>가 고찰하였지만, 역시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正傷寒의 명칭, 개념과 병명분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醫學入門』 傷寒篇을 현재 연구하는데 곤란한 문제 중 하나는 그 引用書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錢聞禮의 『傷寒百證歌』, 陶華의 『傷寒全生集』, 熊宗立의 『類篇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은 진주표<sup>9)</sup>와 김상운<sup>10)</sup>이 처음 활용하였으나, 王震의 『王氏家寶傷寒證治明條備覽』은 여전히 다루지 못하였고, 未詳의 『活人大全』은 여전히 저자와 서적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저자 미상으로 알려진 『傷寒證治明條(下)』(淸抄本)를 최근 발굴하여 그 책이 『醫學入門』의 인용서 중 하나임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에 『醫學入門』 傷寒篇의 正傷寒의 명칭, 개념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며, 병명분류가 무엇에서 비롯되고 그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李旻의 학술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傷寒論』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II. 자료 및 연구대상

引用書와 내용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2). pp.59-85.

- 5) 김상운. 『醫學入門傷寒篇』 중 「初證」의 引用書에 대한 研究. 한국사학회지. 2014. 27(1). pp.87-112.
- 6)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 22(1). pp.66-84.
- 7) 陳寶蒼. 類傷寒의 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8) 朱小靜. 『傷寒雜病論』中類傷寒病證治의 研究. 河北醫科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9) 李旻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p.966-1192.
- 10) 김상운. 『醫學入門傷寒篇』 중 「初證」의 引用書에 대한 研究. 한국사학회지. 2014. 27(1). pp.87-112.

본 논문에서 다룬 문헌은, 집필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醫學入門』의 참고서적과 正傷寒, 類傷寒의 명칭, 개념 등이 있다고 알려진 서적을 기본으로 하고, 필자가 수집한 것을 추가하였다. ‘類傷寒’을 포함하여 검색한 이유는, 類傷寒이 正傷寒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類傷寒’이 있는 서적에서 正傷寒의 명칭, 개념 등도 함께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적의 출판시기와 저자의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중국과 한국을 구별하여 시대순서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醫學入門』(1575) 이전 서적은 『醫學入門』 傷寒編에서 인용한 것을 위주로 한정하였다.

중국의 醫書로는 『傷寒論』(150-219), 『類證活人書』(1108), 『傷寒總病論』(1110), 『注解傷寒論』(1144), 『傷寒九十論』(960-1279), 『傷寒百問歌』(1131-1162), 『仲景傷寒補亡論』(1181), 『傷寒直格』(1186), 『仁齋傷寒類書』(1264), 『傷寒圖歌活人指掌』(1337), 『丹溪心法』(1347), 『證治要訣』(1324-1405), 『傷寒全生集』(1369-1463), 『傷寒六書』(1445),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447), 『傷寒證治明條』(明代), 『傷寒論條辨』(1522-?), 『古今醫統大全』(1556), 『醫學入門』(1575), 『古今醫鑑』(1576), 『萬病回春』(1587), 『證治準繩』(1602), 『壽世保元』(1615), 『景岳全書』(1624), 『明醫指掌』(?-1644), 『簡明醫彙』(1629), 『丹臺玉案』(1636), 『軒岐救正論』(1644), 『傷寒括要』(1649), 『醫燈續焰』(1652), 『傷寒續論』(1667), 『傷寒論辨證廣注』(1680), 『醫貫』(1687), 『張氏醫通』(1695), 『傷寒溯源集』(1708), 『傷寒大白』(1714), 『傷寒貫珠集』(1729), 『醫學心悟』(1732), 『葉選醫衡』(清代), 『醫宗金鑑』(1742), 『傷寒論綱目』(1774), 『傷寒指掌』(1796), 『傷寒捷訣』(清代), 『通俗傷寒論』(清代), 『傷寒尋源』(1850), 『類證治裁』(1851), 『溫熱經緯』(1852), 『松峰說疫』(清代)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醫書로는 『醫方類聚』(1445), 『東醫寶鑑』(1610), 『醫門寶鑑』(1724), 『濟衆新編』(1799), 『晴崗醫鑑』(1984), 『外感科學』(1988), 필사본(연도 미상), 『傷寒學』(1992), 『簡明傷寒學』(1995)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에서 正傷寒의 명칭, 개념, 병명분류를 검색한

결과로부터 正傷寒의 개념과 병명분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그 내용을 시대순서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위의 서적 중 본론과 참고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해당 서적을 검색한 결과 ‘正傷寒’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임을 밝힌다.

### III. 본 론

李梴은 「正傷寒」의 말미에 正傷寒의 이름과 의의를 논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단지 正傷寒 병명 24종과 ‘正傷寒이 傷寒의 큰 관건이다.’라는 의의만 대략 언급하였고<sup>11)</sup>, 「正傷寒」을 編制한 기준이나 근거를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 1. 正傷寒의 명칭과 개념

李梴이 언급한 그 명칭의 유래를 찾아봄으로써 그가 인식한 正傷寒의 개념을 미루어 보며, 『醫學入門』(1575) 이후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醫學入門』의 근거

東漢 張仲景(150 또는 154-215 또는 219)은 『傷寒論』에서 본래 正傷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宋代 朱肱은 『類證活人書』(1108)에서 正傷寒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겨울에 寒毒에 감축되어 즉시 발병하는 것을 傷寒(협의)이라고 하고, 즉시 발병하지 않고 寒毒이 肌膚의 사이에 잠복해 있다가 ... 봄에 변하여 溫病이 되고, 여름에 변하여 熱病이 되는데 ... 모두 열이 나므로 太醫들이 모두 傷寒(광의)이라고 하였다.”<sup>12)</sup>고 하여 협의의 傷寒과 광의의 傷寒 등 서로 다른 개념을 동시에 傷寒이라고 불렀다.

成無己는 『注解傷寒論』(1144)에서 正傷寒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傷寒例」말미에서 傷寒, 傷風, 溫病, 暑病, 冬溫, 時行寒疫, 兩感, 溫瘧, 風溫, 溫毒 등 10종 병명을 제시하고서, “이상은 傷寒熱病的 證候이다”<sup>13)</sup>라고 하여 협의의 傷寒과 광의의 傷寒 개념을

모두 傷寒이라고 불렀다.

錢聞禮(1131-1162)는 『傷寒百問歌』에서 正傷寒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類證活人書』의 설명에 따라 “寒邪에 감축하여 겨울에 즉시 발병하면 傷寒이라 하고, 잠복하여 있다가 봄에 변하면 溫病이라 하고, 여름에 변하면 熱病이라고 하는데, 傷寒, 溫病, 熱病을 모두 통틀어 傷寒이라고 말한다.”<sup>14)</sup>고 하여 협의의 傷寒과 광의의 傷寒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傷寒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金代 劉完素의 『傷寒直格』(1186)에 이르러 正傷寒의 명칭이 처음 나온다고<sup>15)</sup> 알려져 있는데, 「傷寒總評傷寒六經傳受」에서 傷寒과 伏氣溫病的 차이를 설명하면서 “經에 이르되, 겨울에 寒邪가 肌膚 骨肉의 사이에 잠복하였다가, 봄에 이르면 溫病으로 변하고 여름에는 熱病으로 변하고 가을에는 濕病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正傷寒으로 변하는 경우 ... ”<sup>16)</sup>라고 하여 正傷寒을 伏氣溫病의 하나로 보았다.

南宋 楊士瀛의 『仁齋傷寒類書』(1264), 吳惻의 『傷寒圖歌活人指掌』(1337), 朱震亨의 『丹溪心法』(1347)에서는 正傷寒의 명칭을 발견할 수 없었다.

明代에 이르러 戴原禮(1324-1405)는 『證治要訣』 「諸傷門傷風寒」에서 “傷風, 傷寒의 초기에서 ... 嘔證이 ... 正傷寒이 아니다.”<sup>17)</sup>라고 하였고, 또 “感冒에도 風, 寒의 증상이 다른데 感冒에 비해 깊이 적중되면 正傷寒이 된다. ... 가벼우면 感冒가 되고 적중하면 傷寒이 되고 中寒이 된다.”<sup>18)</sup>고 하여 正傷寒이 風, 寒과 관련이 깊다고 여겼지만 그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陶華(陶節菴, 1369-1463)는 『傷寒全生集』에서 “무릇 傷寒이란 것은 霜降 이후부터 春分 이전까지

1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28.

12)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143.

1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60.

14)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中國書店. 1991. p.2.(傷寒解惑論) 이 책은 본래 현대적인 페이지 표기가 없기에 부득이 목차를 併記하며, 이하 모두 동일함.

15)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995.

16) 陳柱杓 註釋. 傷寒直格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중).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10.

17) 戴原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4.

18) 戴原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42.

날씨가 매우 추워서 물이 얼고 땅이 얼어붙어서 매서운 기운을 이루는데 사람이 그 기운에 감촉하여 즉시 병든 것이 正傷寒이 된다.”<sup>19)</sup>라고 하여 비로소 正傷寒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즉 겨울철에 寒邪에 상한 병을 正傷寒이라고 命名하였는데 이는 협의의 傷寒에 해당한다.

또한 그의 『傷寒六書』(1445) 중 『傷寒瑣言』 「治傷寒用藥大略」<sup>20)</sup>, 『傷寒家秘的本』 「傷寒總論」<sup>21)</sup>, 「正傷寒及溫暑暴寒勞力感冒時疫治各不同論」<sup>22)</sup>, 『殺車槌法』 「秘用三十七方就注三十七槌法」<sup>23)24)25)</sup>, 『傷寒一提金』 「一提金啓蒙」<sup>26)</sup>, 「一提金六經證治捷法用藥法」<sup>27)</sup>, 「一提金貫珠數」<sup>28)</sup>, 『傷寒證脈藥載江網』 「傷寒無陰證辯」<sup>29)</sup> 등 많은 곳에서 正傷寒을 언급하였다.

熊宗立은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447) 「一十六證傷寒歌」에서 16종의 傷寒證을 분류하였지만<sup>30)</sup> 正傷寒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王震은 『傷寒證治明條』(明代) 「正傷寒病名一十六種治例論」에서 熊宗立이 언급한 16가지 傷寒證을 正傷寒으로 改名하고, 正傷寒이 仲景 傷寒 正名이라고 언급하였다<sup>31)</sup>.

## (2) 『醫學入門』(1575) 이후 변화

앞서 『醫學入門』 이전에 正傷寒 명칭의 유래와 正傷寒의 개념이 언급된 서적을 살펴보았다. 이에 『醫學入門』 이후 正傷寒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1556)은 『醫學入門』(1575)보다 먼저 간행되었지만 李梴은 그 서적을 인용하지 않았다. 『古今醫統大全』 「傷寒門治傷寒用藥大例」에서 “대개 겨울에 正傷寒이 되니, 風寒이 맹렬하여 감촉된 경우 반드시 辛溫한 藥으로 발산한다. 겨울이 아니거든 惡寒 頭痛의 證이 있으면 모두 辛涼한 藥劑로 表裏를 通하게 하여 和하면 낮거리와 만약 겨울에 사용하는 藥으로 通治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많다.”<sup>32)</sup>고 하여 正傷寒의 治法을 논하고, 「傷寒門六經據證正治之法」에서 “만약 겨울에 正傷寒의 藥으로 때 아닌 感冒의 輕證을 혼동해서 치료하거나, 만약 때 아닌 感冒의 약으로 겨울의 正傷寒의 重證을 치료하면 반드시 해롭게 되니, 죽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sup>33)</sup>고 하였다. 특히 그는 「傷寒藥方評」에서 “白虎湯은 中渴을 다스리며 아올러 汗出 後 한 번 解表하는 藥일 뿐이지, 正傷寒의 藥이 아니다.”<sup>34)</sup>라고 하였다. 이 말은 본래 『類證活人書』(1108)의 “白虎湯은 中渴을 치료하고 汗出 後 解表하는 藥일 뿐이다.”<sup>35)</sup>에서 유래한 것인데, 張兼善의 『傷寒發明』 “正傷寒의 藥이 아니다”<sup>36)</sup>라는 문구를 徐大椿이 추가한 뒤로 여러 醫家들이 따랐다.

龔信은 『古今醫鑑』(1576)에서 正傷寒과 비슷한 명칭으로서 眞傷寒을 사용하였고<sup>37)</sup>, 龔廷賢은 『萬病回春』(1587) 「傷寒治法」에서 正傷寒의 治法은 大汗, 大下이므로 感冒, 溫病과 다르다고<sup>38)</sup> 하고, 麻黃湯, 桂枝湯이 모두 正傷寒을 치료한다고<sup>39)40)</sup> 하고, 正

19) 陶節菴,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工出版社. 2012. p.16.

20)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7.

21)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47-48.

22)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56-57.

23)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1.

24)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2.

25)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37-138.

26)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5.

27)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7.

28)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56-157.

29)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71.

30)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域外漢籍珍本文庫 vol. 4).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3. p.18.

31)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 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6610.

32)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617.

33)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620.

34)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718.

35)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163.

36)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5.

37) 龔廷賢, 古今醫鑑(龔廷賢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74.

38) 龔廷賢, 萬病回春(龔廷賢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4.

39) 龔廷賢, 萬病回春(龔廷賢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6.

40) 龔廷賢, 萬病回春(龔廷賢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6.

傷寒을 勞力傷寒과 구분하여 치료해야 한다고<sup>41)</sup> 하였다.

王肯堂은 『證治準繩傷寒』(1602) 「太陽病發熱」에서 張兼善의 『傷寒發明』<sup>42)</sup>의 글을 인용하여 白虎湯<sup>43)</sup>, 加味香蘇散<sup>44)</sup>, 藿香正氣散<sup>45)</sup>, 大白朮湯<sup>46)</sup> 등이 正傷寒의 藥이 아니라고 하였다. 「四時傷寒不同·春爲溫病」에서 “升麻湯, 解肌湯은 正傷寒 太陽證과 비슷한 溫病을 치료한다.”<sup>47)</sup>고 하고, 「夏爲暑病」에서 “麻黃湯, 桂枝湯은 한겨울 正傷寒의 藥이므로 溫病에 사용하면 안 되며 하물며 熱病에는 더 안 된다.”<sup>48)</sup>고 하고, 梔子升麻湯에서 “만약 풀리지 않아서 혹 傳經變證이나 혹 裏實可下나 혹 陰寒 可溫이나 혹 發斑黃 等證에 모두 正傷寒 條內的 치료를 따른다.”<sup>49)</sup>고 하고, 「四時傷寒不同一歲長幼疾狀相似爲疫」에서 “寒疫은 … 그 證狀이 正傷寒과 같으나 다만 暴寒이 (正傷寒에 비해) 가벼울 뿐이다.”<sup>50)</sup>라고 하고, 春溫, 夏溫에 대해 모두 “表證은 正傷寒과 같지 않으나 裏證을 다스리는 것은 같다.”<sup>51)</sup>고 하고, 秋溫에 대해 “裏證이 나타나는 자는 攻下가 마땅하다. 表證은 正傷寒과 같지 않다.”<sup>52)</sup>고 하고, 「藥性·

寒沈藏」에서 石膏에 대해 설명하면서 “仲景이 白虎湯을 만든 것은 正傷寒을 위하여 베푼 것이다.”<sup>53)</sup>고 하는 등 正傷寒의 치료와는 다른 예를 제시하였다.

張介賓은 『景岳全書』(1624)에서 “傷寒으로 되는 病은 대개 겨울이 嚴寒으로 인해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는 때이므로 殺傷의 기운이 가장 많으니 사람이 감촉되어 즉시 병이 되는 것은 正傷寒이 되니, 이는 곧 陰寒에 直中하는 증상이다.”<sup>54)</sup>라고 하고, “傷寒의 病은 비록 동일하게 寒邪라 하더라도 이름은 같지 않으며, 傷暑의 이름은 비록 동일하게 暑邪라 하더라도 병은 같지 않다. 傷寒의 이름이 같지 않다는 것은 겨울의 추위에는 곧 正傷寒이라고 이르고, 봄의 따뜻함에는 곧 溫病이라고 이르고, 여름의 더위에는 곧 暑病이라고 이른다. 溫病, 暑病도 또한 모두 傷寒의 別名일 뿐이다.”<sup>55)</sup>라고 하고, “傷寒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 直中하는 正傷寒은 적게 발생하지만 겨울에 즉시 발생하지 않고 봄과 여름에 溫病, 熱病이 되는 증상은 많이 발생한다.”<sup>56)</sup>고 설명하고, “겨울에 비정상적인 따뜻함으로 인해 熱病이 생기는 것을 冬溫이라고 하는데 이는 겨울의 正傷寒과 크게 다르다.”<sup>57)</sup>라고 하고, 正傷寒과 비슷한 뜻으로 眞傷寒을 언급하였다<sup>58)</sup>.

皇甫中은 『明醫指掌』(?-1644) 「小兒科傷寒十二」에서 “錢仲陽(錢乙)이 이르되 小兒正傷寒이란 것은 寒邪에 감촉되어 壯熱頭痛, 鼻塞涕流, 畏寒拘急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름지기 解表微汗해야 한다.”<sup>59)</sup>고 하였다.

孫文胤은 『丹臺玉案』(1636)에서 “大傷寒이란 冬

41) 龔廷賢. 萬病回春(龔廷賢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9.  
42) 『證治準繩傷寒』凡例에서 [張]은 張兼善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며, 『中國醫籍通考』(嚴世藝. 中國醫籍通考(vol. 1). 서울. 醫聖堂. 1993. p.375.)에 의하면 이 책은 현재 전해져 오지 않는다.  
43)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5.  
44)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0.  
45)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0.  
46)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20.  
47)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6.  
48)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8.  
49)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99.  
50)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03.  
51)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05.  
52)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05.

醫藥出版社. 1999. p.1005.  
53) 王肯堂. 證治準繩傷寒(王肯堂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53.  
54)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5.  
55)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56.  
56)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5.  
57)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65.  
58)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75.  
59) 皇甫中. 明醫指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0.

월에 天氣가 嚴寒하여 물이 얼고 땅이 얼어서 殺傷의 기운을 이루니, 몸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범한 자가 적중되어 곧장 병들면 正傷寒이라고 한다.”<sup>60)</sup> 라고 하여 張介賓과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眞正傷寒과 感冒傷寒은 傷寒과 비슷하지만 傷寒이 아닌 것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대개 추위는 겨울에 엄하고 응축된 肅殺하는 기운이다. 霜降 이후부터 春分 이전까지 모두 겨울에 속하는데 이때에 감축되어 즉시 발병하는 것이 眞正傷寒이다.”<sup>61)</sup>라고 하였다.

肖京은 『軒岐救正論』(1644) 「藥性微蘊」에서 麻黃이 正傷寒에 마땅한 약이라고<sup>62)</sup> 하고, 「治驗醫案上: 傷寒門」에서 正傷寒에 걸리는 사람은 지난 2,000년 중 겨우 두 사람을 보았을 정도로 드물다고<sup>63)</sup> 하였고, 正傷寒은 感冒에 비해 심한데 類傷寒과 달리 겨울 3개월에 걸린다고<sup>64)</sup> 하고, 「太陽正傷寒」에서 ‘太陽正傷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sup>65)</sup>.

李中梓는 『傷寒括要』(1649) 「傷寒總論」에서 겨울에 寒邪에 상하여 즉시 병들면 正傷寒이 되고, 伏寒이 봄에 발작하면 溫病이 되고, 여름에 발작하면 熱病이 된다고<sup>66)</sup> 하였다.

汪琥는 『傷寒論辨證廣注』(1680) 「曆考昔賢論傷寒兼傳手六經說」과 「纂注傷寒例」에서 霜降 이후 春分 이전에 寒邪에 적중하면 正傷寒이라 하고 나머지 계절에 상하면 類傷寒이라고<sup>67)68)</sup> 하며, 「圖注內經足陰陽六經之脈」에서 正傷寒은 足經에만 전하지만 類傷寒은 간혹 手經으로도 전하며<sup>69)</sup>, 麻黃湯, 葛根湯,

和解散은 正傷寒의 太陽經 發表藥이고<sup>70)71)72)</sup>, 炙甘草湯은 正傷寒, 類傷寒에 두루 쓰는 약이고<sup>73)</sup>, 白虎湯은 正傷寒 약이 아니라고<sup>74)</sup> 하였다.

趙獻可는 『醫貫』(1687) 「溫病論」에서 麻黃湯과 桂枝湯은 正傷寒의 약이라고<sup>75)</sup> 하였다.

張璐는 『張氏醫通』(1695) 「嬰兒門上: 傷寒夾驚夾食」에서 『明醫指掌』(?-1644)을 인용하여 小兒正傷寒이라고<sup>76)</sup> 하고, 「附張介賓八略總論散略」에서 麻黃湯이 겨울 正傷寒의 약이라고<sup>77)78)</sup> 하였다.

錢潢은 『傷寒溯源集』(1708)에서 麻黃湯의 脈證이 正傷寒에 해당된다고<sup>79)</sup> 하였다.

秦之楨은 『傷寒大白』(1714) 「南北方宜發表不同論」에서 “陶節菴이 仲景의 麻黃湯, 桂枝湯이 冬月の 正傷寒을 치료하는 처방이며, … 다만 麻黃湯, 桂枝湯은 北方의 治法이고, 東南에서는 겨울에도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sup>80)</sup> 하였다.

程國彭은 『醫學心悟』(1732) 「傷寒主治四字論」에서 伏寒이 봄에 발작하면 溫病이라 하고 여름에 발작하면 熱病이라 하는데 두통, 발열의 증상은 正傷寒과 같지만 오한과 구갈이 없는 점이 다르다고<sup>81)</sup> 하고, 「傷寒類傷寒辨」에서 霜降 이후 즉시 병이 드는 것이 正傷寒인데, 서북방에서 많고<sup>82)</sup> 그 증상은

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0)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1)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2)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3)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4)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5) 趙獻可. 醫貫. 서울. 도서출판 경단. 1993. pp.32-33.

76) 張璐. 張氏醫通(張璐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59.

77) 張璐. 張氏醫通(張璐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50.

78) 張璐. 傷寒續論(張璐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38.

79) 錢潢. 傷寒溯源集(續修四庫全書. vol. 98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608.

80) 秦之楨. 傷寒大白.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

81) 程國彭. (增批)醫學心悟. 臺北. 文光圖書. 1982. p.45.

60) 孫文胤. 丹臺玉案(中國醫學珍本叢書 중).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1(二卷).

61) 孫文胤. 丹臺玉案(中國醫學珍本叢書 중).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4(二卷).

62) 肖京. 軒岐救正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p.305.

63) 肖京. 軒岐救正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p.349.

64) 肖京. 軒岐救正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pp.345-346.

65) 肖京. 軒岐救正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p.351.

66) 李中梓. 傷寒括要(李中梓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1.

67)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68)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69) 汪琥. 傷寒論辨證廣注.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

傷寒證과 傷風證이 있고 麻黃湯, 桂枝湯으로 치료하며<sup>83)</sup>, 加味香蘇散은 겨울의 正傷寒과 三時感冒에 두루 사용한다고<sup>84)</sup> 하였다.

吳謙은 『醫宗金鑑訂定傷寒論注』(1742) 「解雙散完素解利初法」에서 雙解散이나 通聖散에 六一散을 합한 것을 溫病, 熱病, 正傷寒의 初症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sup>85)</sup> 하였다.

沈金鰲는 『傷寒論綱目』(1774) 「溫病」에서 『醫貫』의 ‘겨울철 寒邪에 감촉된 것이 傷寒이다.’라는 문구에서 ‘傷寒’을 ‘正傷寒’으로 고쳐서 인용하였고<sup>86)</sup>, 「溫疫附錄寒疫時疫論」에서 吳綬의 『傷寒蘊要全書』를 인용하여 正傷寒은 寒疫과 증상은 같으나 輕重이 다르다고<sup>87)</sup> 하고, 陶華의 『傷寒六書』를 인용하여 正傷寒은 溫病과 熱病의 表證과 다르다고<sup>88)</sup> 하였다.

吳坤安은 『傷寒指掌』(1796) 「自序」에서 劉完素가 溫熱病의 이치를 발명하였지만 正傷寒 안에 섞여있다고<sup>89)</sup> 하고, 「傷寒變症-瘧」에서 『金匱要略』의 瘧病 12條 중 風, 寒, 熱, 濕은 모두 正傷寒의 瘧病이라고<sup>90)</sup> 하고, 「疫邪兼六氣入足經從表裏汗下」에서 때 아닌 寒邪로 생기는 寒疫을 正傷寒으로 치료한다고<sup>91)</sup> 하였다.

俞根初는 『通俗傷寒論傷寒本證』(清代)에서 大傷寒은 正傷寒으로도 부르는데, 立冬 후에 嚴寒에는 그 병이 重하고 春, 夏, 秋의 暴寒에는 그 병이 가볍다고<sup>92)</sup> 하였다.

呂震名(呂椿村)은 『傷寒尋源』(1850) 「辟泥四時論病之謬」에서 겨울에 寒邪에 적중하여 생긴 병을 正傷寒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였고<sup>93)</sup>, 「論陶節庵」에서 傷寒을 겨울에 걸리는 병으로 삼아 桂枝湯, 麻黃湯을 正傷寒의 治法으로 삼고 그 나머지를 溫病으로 삼았던 陶節庵의 正傷寒 학설에 반대하였고<sup>94)</sup>, 「辨傷寒一」에서 張仲景이 命名한 傷寒은 外感病을 총칭한 것인데 겨울에 寒邪에 적중한 병을 正傷寒이라고 하면 치료를 그르친다고<sup>95)</sup> 하였다.

林佩琴은 『類證治裁』(1851) 「傷寒治要」에서 表裏에 모두 열이 있는 증상은 正傷寒에도 있지만 溫熱症에 더욱 많다고<sup>96)</sup> 하였다.

王孟英은 『溫熱經緯』(1852) 「葉香岩外感溫熱篇」에서 王士雄의 학설을 인용하여 『難經』의 五種傷寒(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sup>97)</sup> 중 오직 寒邪에 감촉되어 즉시 병든 것을 正傷寒이라고 하니, 溫病, 熱病, 暑病, 濕病은 正傷寒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sup>98)</sup> 하였다.

劉奎는 『松峰說疫』(清代) 「述古」에서 겨울에 때 아닌 溫熱로 발병한 것을 冬溫이라고 하는데 겨울의 正傷寒과 크게 다르다고<sup>99)</sup> 하였다.

우리나라는 『醫方類聚』(1445) 29卷 「論時氣」에서 時氣가 그 傳變이 傷寒과 동일하면 正傷寒의 방법으로 치료한다고<sup>100)</sup> 하고, 「瘴氣論」에서 瘴氣는 그 治法이 傷寒과 다름이 없어서 正傷寒의 증후를 따라 치료한다고<sup>101)</sup> 하고, 『難經-五十八難』의 ‘傷寒

82) 程國彭. (增批)醫學心悟. 臺北. 文光圖書. 1982. pp.69-70.

83) 程國彭. (增批)醫學心悟. 臺北. 文光圖書. 1982. p.65.

84) 程國彭. (增批)醫學心悟. 臺北. 文光圖書. 1982. p.70.

85) 吳謙. 醫宗金鑑訂定傷寒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015.

86) 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23-724.

87) 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26.

88) 沈金鰲. 傷寒論綱目(沈金鰲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26-727.

89) 吳坤安. 傷寒指掌.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90) 吳坤安. 傷寒指掌.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91) 吳坤安. 傷寒指掌.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92) 俞根初. 通俗傷寒論. 臺北. 旋風出版社. 1976. p.180.

93) 呂椿村. 傷寒尋源(珍本醫書集成. vol. 4 傷寒類). 서울. 醫聖堂. 1994. p.135.

94) 呂椿村. 傷寒尋源(珍本醫書集成. vol. 4 傷寒類). 서울. 醫聖堂. 1994. p.136.

95) 呂椿村. 傷寒尋源(珍本醫書集成. vol. 4 傷寒類). 서울. 醫聖堂. 1994. p.147.

96) 林佩琴.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1978. p.18.

97) 扁鵲(秦越人)撰. 王九思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48.

98) 王孟英. 溫熱經緯(王孟英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99) 劉奎. 松峰說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6.

100) 金禮蒙. 醫方類聚(vol. 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56.

101) 金禮蒙. 醫方類聚(vol. 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56.



有五'에 따라 中風, 傷寒, 溫病, 濕溫, 熱病의 5종으로 분류하였다<sup>102)</sup>. 38卷 「傷寒總評」에서 겨울에 寒邪가 잠복했다가 봄에는 溫病으로 변하고 여름에는 熱病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濕病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正傷寒으로 변한다고<sup>103)</sup> 하고, 54卷 「四時傷寒并時氣中風方」에서 中風(傷風의 의미임)의 治法은 正傷寒과 동일하다고<sup>104)</sup> 하고, 240卷 「治法略序」에서 小兒正傷寒의 증후를 제시하고<sup>105)</sup>, 또한 寒疫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으나 正傷寒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東醫寶鑑』(1610) 「外感挾內傷證」에서 『萬病回春』을 인용하여 勞力感寒을 正傷寒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sup>106)</sup> 하였고, 雜病篇 卷三 寒(下)의 말미 「傷寒有十六」에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를 인용하고 또 傷寒病 병명 16종과 별도로 10종을 제시하였다<sup>107)</sup>.

周命新은 『醫門寶鑑』(1724) 卷一 「類傷寒」에서 『醫學入門』에서 中暑, 中暈, 風溫, 濕溫을 正傷寒으로 분류, 배열한 이유를 설명하였다<sup>108)</sup>.

康命吉은 『濟衆新編』(1799)에서 正傷寒을 언급하지 않았다.

金永勳, 李鍾馨은 『晴崗醫鑑』(1984)에서 正傷寒을 麻黃湯證이나 桂枝湯證 같은 傷寒病이라고<sup>109)</sup> 하였다.

1980년~1990년에 『醫學入門』 正傷寒을 언급한 서적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外感科學』<sup>110)</sup>, 『傷寒學

』<sup>111)</sup>, 필사본<sup>112)</sup>, 『簡明傷寒學』<sup>113)</sup> 등이 그것이다.

그 중 필사본에서 正傷寒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正傷寒은 司天이 運을 生하는 것(예: 壬辰年)으로 六經의 本證이 그대로 나타난다. 심한 증상이 아니며 잘 치료된다. 類傷寒은 司天이 運을 克하는 것(예: 辛丑年)으로 正傷寒이 변하여 발생된다. 陽證은 陽證끼리 나타나며 陰證은 陰證끼리 나타난다. 變傷寒은 運이 司天을 生하는 것(예: 壬子年)으로 陰證은 변하여 陽證으로, 陽證은 변하여 陰證으로 나타나며 症狀을 구별하기 힘들다. 雜傷寒은 運이 司天을 克하는 것(예: 癸酉年)으로 陽證, 陰證이 합하여 나타난다. 죽는 경우가 많다.”<sup>114)</sup>고 하였다.

### (3) 고찰

李梴이 인식한 正傷寒은 그 병명분류에 傷寒, 傷風 외에도 中暑, 中暈, 寒疫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의 傷寒보다는 광의의 傷寒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傷寒論』에 본래 正傷寒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고, 宋代 朱肱의 『類證活人書』(1108)이나 金代 成無己의 『注解傷寒論』(1144)에도 正傷寒을 언급하지 않았다.

正傷寒의 명칭은 비록 劉完素의 『傷寒直格』(1186)에서 처음 발견되지만 李梴이 인식한 正傷寒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劉完素는 正傷寒을 伏氣溫病의 하나로 보았는데, 이는 李梴의 인식과 전혀 다르다.

#### ① 광의의 傷寒(外感病 전체)으로 '傷寒'을 언급

일찍이 광의의 傷寒과 협의의 傷寒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傷寒'으로 부른 서적은 宋代 朱肱의 『類證活人書』(1108)이다. 즉 그는 『類證活人書』에서 正傷寒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겨울에 寒毒에 감촉되어 즉시 발병하는 것을 傷寒(협의)이

102) 金禮蒙. 醫方類聚(vol. 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54.

103) 金禮蒙. 醫方類聚(vol. 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298.

104) 金禮蒙. 醫方類聚(vol. 3).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225.

105) 金禮蒙. 醫方類聚(vol. 1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63.

106)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38.

107)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41.

108) 周命新. 醫門寶鑑(上). 서울. 一社. 1991. p.40.

109) 金永勳 저. 李鍾馨 편.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84. p.85.

110) 金弘起, 姜鎭春. 外感科學. 발행처 미상. 大韓印刷出版社. 1988. p.7.

111) 姜鎭春, 金弘起. 傷寒學. 서울. 一社. 1992. pp.7-8.

112) 김홍기. (I) 總論, 正傷寒(『醫學入門傷寒』 김홍기 교수 강의록 중). 발행처 미상. 필사본. 발행연도 미상. 목록 부분(페이지 표기 없음).

113) 姜鎭春. 簡明傷寒學. 서울. 도림출판사. 1995. pp.10-18.

114) 김홍기. (I) 總論, 正傷寒(『醫學入門傷寒』 김홍기 교수 강의록 중). 발행처 미상. 필사본. 발행연도 미상. 목록 부분(페이지 표기 없음).

라고 하고, 즉시 발병하지 않고 寒毒이 肌膚의 사이에 잠복해 있다가 봄에 변하여 溫病이 되고, 여름에 변하여 熱病이 되는데 모두 열이 나므로 傷寒, 溫病, 熱病을 모두 傷寒(광의)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 이후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錢問禮의 『傷寒百問歌』에서 朱肱의 傷寒에 대한 관점(광의의 傷寒과 협의의 傷寒을 모두 傷寒으로 부름)을 따랐다.

楊士瀛의 『仁齋傷寒類書』, 朱震亨의 『丹溪心法』에서는 正傷寒의 명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熊宗立은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一十六證傷寒歌」에서 中濕, 中暈, 風溫, 濕溫 등을 포함한 16종의 傷寒證을 제시하였지만 正傷寒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 ② 광의의 傷寒(外感病 전체)으로 '正傷寒'을 언급

王震에 이르러 熊宗立의 '一十六證 傷寒'을 '正傷寒 病名 一十六種'으로 改名하고, '正傷寒은 仲景 傷寒 正名'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王震은 '正傷寒'이란 張仲景이 본래 傷寒이라고 여겼던 제대로 된 이름(正名)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張仲景의 傷寒은 風邪, 寒邪로 발생하는 병뿐만 아니라, 濕邪, 暑邪, 火邪(溫邪) 등 자연계의 六氣가 원인이 된 병을 총칭하며, 이는 광의의 傷寒에 해당된다. 그러나 正傷寒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正傷寒 병명 16種 중에서 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은 협의의 傷寒에 해당되고, 中濕, 中暈, 風濕, 濕溫, 風溫, 溫瘧, 熱病, 晚發, 溫毒은 광의의 傷寒에 해당되며, 瘧病까지도 광의의 傷寒, 즉 外感病 중 하나로 삼았다. 즉 王震이 인식한 正傷寒은 광의의 傷寒 개념에 해당하는데, 瘧病까지 그것에 포함시켰다.

王震이 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으로 볼 때, 그의 『傷寒證治明條』는 『醫學入門』 傷寒編 編制 중 「正傷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언급

明代 陶華가 『傷寒全生集』과 『傷寒六書』(1445)에서 비로소 正傷寒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여, 겨울철에 寒邪에 상한 병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설명한

正傷寒은 협의의 傷寒에 해당한다. 李梴은 협의의 傷寒 외에 濕病, 溫病 등을 포함하였으므로 陶華와 李梴의 正傷寒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1556)은 『醫學入門』(1575)보다 먼저 간행되었는데, 正傷寒(협의)에 辛溫한 약으로 發散한다는 治法을 제시하였다.

龔廷賢은 『萬病回春』(1587)에서 正傷寒(협의)의 처방으로 麻黃湯, 桂枝湯을 처음 제시한 후로 여러 서적에서 그 의견을 따랐다.(Table 3 참조)

王肯堂은 『證治準繩·傷寒』(1602)에서 正傷寒(협의)의 처방을 제시하였다.

張介賓은 『景岳全書』(1624)에서 正傷寒이 겨울에 즉시 발생할 뿐만 아니라 陰寒에 상한 것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正傷寒(겨울), 溫病(봄), 暑病(여름)의 공통점은 겨울철의 寒邪이지만 즉시 발병하거나 잠복하였다가 발생하므로 각각 그 이름이 다르다고 하였다. 孫文胤은 『丹臺玉案』(1636)에서 그 문구를 인용하였다.

皇甫中은 『明醫指掌』(?-1644)에서 錢乙이 小兒正傷寒을 제시하였다고 하였으나,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에서 小兒正傷寒이라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고, 다만 敗毒散의 主治에서 비슷한 문구(115)만 발견될 뿐이다. 즉 錢乙은 직접 小兒正傷寒을 언급한 적이 없고 皇甫中이 처음으로 小兒正傷寒(협의)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李中梓는 『傷寒括要』(1649)에서 겨울에 寒邪에 상하여 즉시 병드는 것을 正傷寒이 되고 伏寒이 봄에 발작하면 溫病이 되고 여름에 발작하면 熱病이 된다고 하여,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하였다.

程國彭은 『醫學心悟』(1732)에서 正傷寒에 대해 원인, 증상, 처방 등을 모두 갖추어 正傷寒(협의)의 개념과 의의가 비교적 완벽하다. 특히 正傷寒이 溫病, 熱病과 상대되는 개념이며, 그 증상은 傷寒證과 傷風證이 있다고 하였다.

沈金鰲는 『傷寒論綱目』(1774)에서 겨울철 寒邪에 감촉되어 발생하는 傷寒이 正傷寒이라고 하였다.

115) 錢乙. 小兒藥證直訣(錢乙 劉昉 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41.

吳坤安은 『傷寒指掌』(1796)에서 正傷寒을 溫熱病과 구별하였고, 瘧病 중 風, 寒, 熱, 濕은 모두 正傷寒의 瘧病이며, 瘧病(風, 寒, 熱, 濕)과 寒疫이 正傷寒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呂震名(呂樸村)은 『傷寒尋源』(1850) 「辟泥四時論病之謬」에서 ‘겨울에 寒邪에 적중하여 생긴 병을 正傷寒으로 부른다.’는 陶節菴의 正傷寒 학설에 반대하고, 張仲景이 命名한 傷寒은 外感病을 총칭한 것이라고 보았다.

林佩琴은 『類證治裁』(1851)에서 正傷寒을 溫熱病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王孟英은 『溫熱經緯』(1852)에서 『難經』의 ‘傷寒有五’(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 중 오직 寒邪에 감축되어 즉시 병든 것을 正傷寒으로 부르고, 溫病, 熱病, 暑病, 濕病은 正傷寒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한 것이다.

劉奎는 『松峰說疫』(清代)「述古」에서 겨울에 때 아닌 溫熱로 발병한 冬溫이 겨울의 正傷寒과 크게 다르다고 하여, 正傷寒을 겨울에 寒邪에 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의 특징을 여러 서적에서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가령 肖京은 『軒岐救正論』(1644)에서 正傷寒에 걸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점, 正傷寒과 類傷寒은 걸리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汪琥는 『傷寒論辨證廣注』(1680)에서 正傷寒은 足經에만 전한다고 하였고, 秦之楨은 『傷寒大白』(1714)에 東南方에는 正傷寒이 없다고 하였고, 程國彭은 『醫學心悟』(1732)에서 正傷寒은 서북방에서 많다고 하였다.

#### ④ 非時暴寒(또는 寒疫), 瘧病을 正傷寒으로 인식

王肯堂은 『證治準繩-傷寒』(1602) 「四時傷寒不同-一歲長幼疾狀相似爲疫」에서 “寒疫은 … 그 證狀이 正傷寒과 같으나 다만 暴寒이 (正傷寒에 비해) 가벼울 뿐이다.”고 하여 寒疫이 正傷寒과 같다고 여겼다. 寒疫은 일반적으로 협의의 傷寒에 해당되지 않는다.

沈金鰲는 『傷寒論綱目』(1774)에서 正傷寒은 寒疫과 증상이 같으나 輕重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협의의 傷寒 개념과 거리가 있다.

吳坤安은 『傷寒指掌』(1796)에서 때 아닌 寒邪로 생기는 寒疫을 正傷寒으로 치료한다고 하고, 瘧病 중 風, 寒, 熱, 濕은 모두 正傷寒의 瘧病이라고 하였다. 즉 寒疫과 瘧病(風, 寒, 熱, 濕)이 正傷寒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데, 寒疫과 瘧病은 일반적으로 협의의 傷寒에 해당되지 않으며, 寒邪를 포함한 六氣가 원인이 된 광의의 傷寒에 비해 포괄 범위가 좁다.

俞根初는 『通俗傷寒論-傷寒本證』(清代)에서 正傷寒을 大傷寒이라고 부르고 正傷寒을 四季에 感寒해서 생기는 病으로 보았다. 즉 非時暴寒을 正傷寒으로 본 것인데, 이는 협의의 傷寒과도 다르고 광의의 傷寒과도 다르다.

#### ⑤ 우리나라의 인식

『醫方類聚』(1445)에서 小兒正傷寒의 증후를 제시하고, 時氣와 瘴氣, 中風(傷風의 의미임)은 그 治法이 正傷寒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한 듯하지만 時氣, 瘴氣의 치료까지 正傷寒에 포함시킨 점은 협의의 傷寒과 다르다. 동시에 ‘겨울에 寒邪가 잠복했다가 봄에는 溫病으로 변하고 여름에는 熱病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濕病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正傷寒으로 변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혹 劉完素의 正傷寒 개념(伏氣溫病)을 따르기도 했다. 傷寒病의 분류로서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광의의 傷寒과 협의의 傷寒을 모두 언급한 것이다. 또한 비록 寒疫을 언급하였으나 正傷寒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東醫寶鑑』(1610)에서 勞力感寒을 正傷寒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그 編制에서 傷寒病을 雜病 중 하나(寒)로 취급하여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하였다.

동시에 雜病篇 卷三 寒(下)의 말미 「傷寒有十六」에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를 인용하고, 또 傷寒病 병명 16종과 별도로 『醫學入門』 正傷寒 병명 10종(濕病 5종, 溫病 5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許浚은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동시에 광의의 正傷寒 학설을 참고로 소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周命新은 『醫門寶鑑』(1724)에서 『醫學入門』의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이라고 간주하여 『醫學入門』의

正傷寒 병명 24종 중 暑病, 風溫, 濕溫을 類傷寒으로 변경, 분류하였다.

康命吉은 『濟衆新編』(1799)에서 正傷寒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金永勳, 李鍾馨은 『晴崗醫鑑』(1984)에서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하였다.

1980년~1990년에 『醫學入門』 正傷寒을 언급한 서적들이 다시 등장했는데 『外感科學』, 『傷寒學』, 필사본, 『簡明傷寒學』 등이 그것이다. 이 서적들은 김흥기, 강진춘의 저서이지만 실제로는 김해영 선생으로부터 사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正傷寒의 개념과 분류가 『簡明傷寒論』을 제외하고 그 서적끼리 동일하다.

그 중 필사본에서 正傷寒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 『醫學入門』 傷寒의 編制 중, 正傷寒, 類傷寒, 變證, 雜證을 運氣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司天과 大運의 生克 여하에 따라 각각 正傷寒, 類傷寒, 變傷寒, 雜傷寒으로 분류하였다. 즉 正傷寒은 司天이 運을 生하는 것(예: 壬辰年)으로 六經의 本證이 그대로 나타나며 심한 증상이 아니며 잘 치료된다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李梴이 인식한 正傷寒은 간접적으로 『類證活人書』에서 제시한 廣의의 傷寒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며, 직접적으로 王震이 제시한 正傷寒(廣의의 傷寒)의 명칭과 병명분류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醫學入門』의 正傷寒에는 水證과 黃證 등이 포함되어 병명의 포괄범위가 다르다.

### ㉞ 正傷寒 개념의 기원과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廣의의 傷寒으로서 正傷寒 개념이 『類證活人書』에서 처음 나타났지만, 廣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의 명칭은 『傷寒證治明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醫學入門』의 전후로 正傷寒의 명칭과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시대순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해당되면 ○, 해당되지 않으면 ×, 명확하지 않으면 △로 표시함)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醫學入門』 이전에 『類證活人書』, 『注解傷寒論』, 『傷寒百問歌』, 『類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등에서 廣의의 傷寒까지 傷寒이라고 여겼으나 正傷寒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王震이 『傷寒證治明條』에서 廣의의 傷寒 개념으로 正傷寒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李梴은 王震의 견해를 따라서 廣의의 傷寒을 正傷寒이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戴元禮의 『證治要訣』에서 협의의 傷寒 개념으로 正傷寒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지만, 陶華(『傷寒全生集』, 『傷寒六書』)가 正傷寒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뒤로 正傷寒의 개념이 협의의 傷寒으로 중심이 옮겨져서 廣의의 傷寒 개념으로 正傷寒을 언급한 서적은 『傷寒尋源』, 『東醫寶鑑』에 불과하였다.

또한 正傷寒은 『證治準繩』, 『傷寒論綱目』, 『傷寒指掌』, 『通俗傷寒論』 등에서 四時에 暴寒으로 인해 발생하는 疢病(非時暴寒) 또는 寒疫의 개념으로도 쓰였는데, 이 경우 ‘大傷寒’(『傷寒論綱目』)으로도 불렸다.

특히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되는 正傷寒은 眞傷寒, 眞正傷寒, 大傷寒, 小兒正傷寒, 太陽正傷寒 등 다양하게 불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Table 2 참조)

‘正傷寒’의 ‘正’이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므로 ‘眞傷寒’, ‘眞正傷寒’, 즉 진짜 傷寒 또는 진짜 正傷寒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大傷寒’이란 용어는 傷寒이 大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小兒正傷寒’이란 용어는 소아에게도 正傷寒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太陽正傷寒’은 正傷寒이 太陽經에 주로 나타남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 ㉟ 正傷寒 처방

正傷寒의 治法은 일찍이 陶華가 『傷寒六書』(1445)에서 表證에 辛熱한 藥을 사용하여 大發汗하고, 裏證에 寒涼한 藥을 사용하여 急攻下한다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1556)에서 正傷寒은 辛溫한 약으로 發散한다는 治法을 제시하고, 張兼善의 『傷寒發明』을 인용하여 白虎湯은 正傷寒의 약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여 후세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았다.

龔廷賢의 『萬病回春』(1587)에서 麻黃湯, 桂枝湯이 모두 正傷寒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王肯堂은 『證治準繩·傷寒』(1602)에서 『傷寒發明』을 인용하여 白虎湯, 加味香蘇散, 藿香正氣散, 大白朮湯 등이 正傷寒의 藥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藥性·寒沈藏』에서는 仲景이 白虎湯을 만든 것은 正傷寒을

Table 1. changes of concept of true-cold damage

正傷寒의 개념 서적		正傷寒 명칭	伏氣溫 病	광의의 傷寒	협의의 傷寒	非時暴寒 寒疫	運氣로 해석
1	類證活人書(1108)	×		○			
2	注解傷寒論(1144)	×		○			
3	傷寒百問歌(1131-1162)	×		○			
4	傷寒直格(1186)	○	○				
5	證治要訣(1324-1405)	○			△		
6	傷寒全生集(1369-1463)	○			○		
7	傷寒六書(1445)	○			○		
8	醫方類聚(1445)*	○	○	○	○		
9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447)	×		○			
10	傷寒證治明條(明代)	○		○			
11	古今醫統大全(1556)	○			○		
12	醫學入門(1575)	○		○			
13	東醫寶鑑(1610)*	○		○	○		
14	古今醫鑑(1576)	○			○		
15	證治準繩(1602)	○			○	○	
16	景岳全書(1624)	○			○		
17	明醫指掌(?-1644)	○			○		
18	丹臺玉案(1636)	○			○		
19	軒岐救正論(1644)	○			○		
20	傷寒括要(1649)	○			○		
21	傷寒論辨證廣注(1680)	○			○		
22	醫貫(1687)	○			○		
23	張氏醫通(1695)	○			○		
24	傷寒溯源集(1708)	○			○		
25	傷寒大白(1714)	○			○		
26	醫學心悟(1732)	○			○		
27	傷寒論綱目(1774)	○			○	○	
28	傷寒指掌(1796)	○			○	○	
29	濟衆新編(1799)*	○			○		
30	通俗傷寒論(清代)	○				○	
31	傷寒尋源(1850)	○		○			
32	晴崗醫鑑(1984)*	○			○		
33	外感科學(1988)*	○					○
34	필사본(미상)*	○					○
35	傷寒學(1992)*	○					○
36	簡明傷寒學(1995)*	○					○
	총 수	32	2	8	23	4	4

(\* 표시는 우리나라 서적을 의미함.)

위하여 베푼 것이라고 하여 『傷寒發明』과 상반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皇甫中은 『明醫指掌』(?-1644)에서 小兒正傷寒에 敗毒散으로 解表微汗해야 한다고 하였다.

肖京은 『軒岐救正論』(1644)에서 麻黃이 正傷寒에 마땅한 약이라고 하였다.

Table 2. byname of true-cold damage after *Introduction to Medicine*

正傷寒 異名	서적
眞傷寒	古今醫鑑, 景岳全書, 丹臺玉案
眞正傷寒	丹臺玉案
大傷寒	丹臺玉案, 通俗傷寒論
小兒正傷寒	明醫指掌, 張氏醫通, 醫方類聚
太陽正傷寒	軒岐救正論

Table 3. prescriptions for true-cold damage(正傷寒) besides *Introduction to Medicine*

서적	正傷寒 처방	비고
傷寒六書	辛熱한 藥(表證), 寒涼한 藥(裏證)	
古今醫統大全	辛溫한 藥	白虎湯은 類傷寒 藥
醫學入門	생략	종류가 많아서 생략함
萬病回春	麻黃湯, 桂枝湯	
證治準繩	麻黃湯, 桂枝湯, 白虎湯	白虎湯은 혹 類傷寒 藥이기도 함
明醫指掌	敗毒散	小兒正傷寒
軒岐救正論	麻黃	
傷寒論辨證廣注	麻黃湯, 葛根湯, 和解散, 炙甘草湯	炙甘草湯은 類傷寒 檢용
醫貫	麻黃湯, 桂枝湯	
張氏醫通	麻黃湯	
傷寒溯源集	麻黃湯	
傷寒大白	麻黃湯, 桂枝湯	東南은 겨울에도 쓰면 안 됨
醫學心悟	麻黃湯, 桂枝湯	加味香蘇散은 三時感冒 檢용
醫宗金鑑	雙解散, 通聖散 合 六一散	모두 溫病, 熱病 檢용
傷寒尋源	桂枝湯, 麻黃湯	협의의 傷寒 분류의 잘못을 주장

汪琥는 『傷寒論辨證廣注』(1680)에서 麻黃湯, 葛根湯, 和解散은 正傷寒의 太陽經 發表藥이고, 炙甘草湯은 正傷寒, 類傷寒에 두루 쓰는 약이고, 白虎湯은 正傷寒 약이 아니라고 하였다.

趙獻可는 『醫貫』(1687)에서 麻黃湯과 桂枝湯은 正傷寒의 약이라고 하였다.

張璐는 『張氏醫通』(1695)에서 麻黃湯이 겨울 正傷寒의 약이라고 하였다.

錢潢은 『傷寒溯源集』(1708)에서 麻黃湯의 脈證이 正傷寒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秦之楨은 『傷寒大白』(1714)에서 陶節菴의 의견을 따라 仲景의 麻黃湯, 桂枝湯이 冬月의 正傷寒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여기고, 麻黃湯, 桂枝湯은 北方

의 治法이고, 東南에서는 겨울에도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程國彭은 『醫學心悟』(1732)에서 正傷寒의 傷寒證, 傷風證을 麻黃湯, 桂枝湯으로 치료하며, 加味香蘇散은 겨울의 正傷寒과 三時感冒에 두루 사용한다고 하였다.

吳謙은 『醫宗金鑑訂定傷寒論注』(1742)에서 雙解散이나 通聖散에 六一散을 합한 것을 溫病, 熱病, 正傷寒의 初症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呂震名(呂椿村)은 『傷寒尋源』(1850) 「論陶節庵」에서 傷寒을 겨울에 걸리는 병으로 삼아 桂枝湯, 麻黃湯을 正傷寒의 治法으로 삼고 그 나머지를 溫病으로 삼았던 陶節菴의 正傷寒 학설에 반대하였다.

이상에서 『醫學入門』외에 正傷寒의 처방을 제시한 서적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1과 Table 3에서 보듯이, 주로 桂枝湯, 麻黃湯 등을 正傷寒의 처방이라고 분류한 서적들은 모두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 2. 正傷寒의 병명분류

먼저 『醫學入門』 正傷寒의 병명분류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醫學入門』이후 그 분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醫學入門』의 근거

李梴이 正傷寒으로 분류한 병명은 傷寒, 傷風, 傷風見寒, 傷寒見風, 合病, 併病, 兩感, 中霧露, 中暑, 中喝, 熱病, 晚發(冬溫 포함), 瘧瘧의 12종과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의 濕病 5종과 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의 溫病 5종과 水證, 黃證을 더한 24종인데, 그 중 濕病과 溫病이 절반(24종 중 10종)이 되므로 濕熱이 병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sup>116)</sup> 하였다. ‘濕熱이 병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문구로부터 李梴이 正傷寒을 광의의 傷寒으로 인식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醫學入門』 이전에 正傷寒에 속하는 병명을 여러 서적에서 제시하였는데, 이를 시대순서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宋代 朱肱은 『類證活人書』(1108) 「卷六」에서 傷寒病에 傷寒, 傷風, 熱病, 中暑, 溫病, 溫瘧, 風溫, 溫疫, 中濕, 濕溫, 瘧病, 溫毒 등 12종을 언급하였으나<sup>117)</sup> 이를 正傷寒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金代 成無己는 『注解傷寒論』(1144) 「傷寒例」에서 傷寒, 傷風, 溫病, 暑病, 冬溫, 時行寒疫, 兩感, 溫瘧, 風溫, 溫毒 등 10종을 제시하였으나<sup>118)</sup> 이를 正傷寒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元代 吳恕의 『傷寒圖歌活人指掌』(1337) 「傷寒正名十六件」에서 『類證活人書』의 傷寒病 12종에 다시 『諸病源候論』의 時行疫癘와 『類證活人書』 「卷五」第

37問의 壞病과 「卷六」第40問의 中風傷寒, 傷風見寒의 4종을 추가하였으나<sup>119)</sup> 이를 正傷寒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明代 陶華는 『傷寒六書』(1445) 중에서 正傷寒에 대한 병명분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熊宗立은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447) 「一十六證傷寒歌」에서 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風濕, 濕溫, 風溫, 溫毒, 中喝, 熱病, 溫病, 晚發, 瘧病, 溫瘧, 疫癘로 16종 傷寒證을 제시하였다<sup>120)</sup>.

王震은 『傷寒證治明條』(明代) 「正傷寒病名一十六種治例論」에서 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風濕, 濕溫, 風溫, 溫毒, 中喝, 溫病, 熱病, 晚發, 瘧病, 溫瘧, 疫癘(天行疫時氣) 등 正傷寒 16종 병명을 제시하였다<sup>121)</sup>.

### (2) 『醫學入門』(1575) 이후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Table 1 참조), 『醫學入門』이전에는 비록 正傷寒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광의의 傷寒으로서 ‘傷寒’을 언급한 서적(『類證活人書』, 『注解傷寒論』, 『傷寒百問歌』,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등)이 적지 않았다가, 광의의 傷寒으로서 ‘正傷寒’을 언급한 서적(『傷寒證治明條』, 『醫學入門』)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醫學入門』전후로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正傷寒 병명은 傷寒, 傷風과 非時暴寒(또는 寒疫), 瘧病 등에 불과하였다.

그에 따라 『醫學入門』이후 그와 같은 正傷寒의 병명분류(24종)를 제시한 서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呂震名(呂椿村)은 『傷寒尋源』(1850)에서 正傷寒에 대해 張仲景이 命名한 傷寒은 外感病을 총칭한 것(광의의 傷寒)이라고 인식하고, 그는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에 따라 中風, 傷寒, 溫病, 濕溫, 熱

119) 吳恕. 傷寒圖歌活人指掌(四庫未收輯刊 卷4집 25책). 北京. 北京出版社. 2000. p.16.

120)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域外漢籍珍本文庫 vol. 4).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3. p.18.

121)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 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12-6654.

11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28.

117)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155.

118)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52-60.

病의 5종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醫方類聚』(1445) 29卷에서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中風, 濕溫, 傷寒, 熱病, 溫病)에 따라 傷寒을 中風, 傷寒, 溫病, 濕溫, 熱病의 5종으로 분류하였다<sup>122)</sup>.

許浚은 『東醫寶鑑』卷三 寒(下)의 말미에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를 인용하고, 또 「傷寒有十六」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傷寒 16종(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風濕, 濕溫, 風溫, 溫毒, 中暈, 熱病, 溫病, 晚發, 瘧病, 溫瘧, 疫癘)과 濕病 5종(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과 溫病 5종(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 등 26종을 제시하였다<sup>123)</sup>.

周命新은 『醫門寶鑑』(1724) 卷一 「類傷寒」에서 『醫學入門』이 中暑, 中暈, 風溫, 濕溫까지 正傷寒으로 배열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醫學入門』은 暑, 風, 濕, 溫의 四氣로 통틀어 논했지만 周命新 자신은 단지 寒만을 취하여 말했기 때문이라고<sup>124)</sup> 하고 類傷寒 13종(食積, 脚氣, 瘡毒, 痰證, 感冒, 內傷, 痘疹, 痰火, 瘀血, 暑病, 風溫, 濕溫, 砂症)을 제시하였다.

康命吉은 『濟衆新編』(1799)에서 脈法,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 傷寒陽症, 傷寒陰症, 傷寒裏症, 傷寒陰毒, 傷寒陽毒, 陰極似陽, 陽極似陰, 傷寒煩燥, 舌胎, 傷寒戴陽, 傷寒戰慄, 傷寒動悸, 傷寒煩渴, 傷寒譫語鄭聲, 傷寒發狂, 傷寒結胸, 傷寒痞氣, 傷寒血症, 傷寒自利, 傷寒吐衄, 壞症, 百合症, 勞復, 食復, 陰陽易, 婦人傷寒熱入血室, 傷寒無脈, 瘵後昏沈, 傷寒瘵後雜症, 中寒症, 感冒, 外感挾內傷, 婦人傷寒, 痼冷 등<sup>125)</sup>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傷寒病에 대한 분류이지, 正傷寒에 대한 분류는 아니다.

金永勳, 李鍾馨은 『晴崗醫鑑』(1984)에서 正傷寒은 곧 麻黃湯證이나 桂枝湯證 같은 傷寒病이라고 하였으므로<sup>126)</sup> 그들의 正傷寒 병명분류는 麻黃湯證,

桂枝湯證 2종에 불과하다.

최근에 『醫學入門』 正傷寒의 병명분류(24종)를 따른 서적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外感科學』(1988), 필사본(발행연도 미상), 『傷寒學』(1992), 『簡明傷寒學』(1995) 등이 그것이다.

이 서적들은 正傷寒의 병명분류가 『簡明傷寒學』을 제외하고 『醫學入門』과 동일하다. 다만 『簡明傷寒學』에서 『醫學入門』 正傷寒 병명분류 24종(傷寒, 傷風, 傷風見寒, 傷寒見風, 合病, 併病, 兩感, 中霧露, 中暑, 中暈, 熱病, 晚發, 冬溫, 瘧瘵의 14종과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의 5종 濕病과 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의 溫病 5종)을 傷寒, 傷風, 傷風見寒, 傷寒見風, 風溫,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疫, 寒疫, 冬溫, 溫瘧, 頭痛, 顛痛, 疫癘 등 17종으로 바꾸었다<sup>127)</sup>.

### (3) 고찰

위와 같이 『醫學入門』의 전후로 여러 서적에서 正傷寒 병명분류를 찾아보았는데, 그 병명분류가 시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광의의 傷寒으로서의 '傷寒病' 병명분류

宋代 朱肱은 『類證活人書』(1108)에서 傷寒病 12종(傷寒, 傷風, 熱病, 中暑, 溫病, 溫瘧, 風溫, 溫疫, 中濕, 濕溫, 瘧病, 溫毒)을 제시하였지만 正傷寒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成無己는 『注解傷寒論』(1144) 「傷寒例」에서 傷寒熱病 10종을 제시하였지만 역시 正傷寒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元代 吳恕의 『傷寒圖歌活人指掌』(1337) 「傷寒正名十六件」에서 『類證活人書』의 12종에 다시 時行疫癘, 壞病, 中風傷寒, 傷風見寒의 4종을 추가하여 傷寒病을 16종으로 분류하여 '傷寒正名十六件'이라고 명명하였지만 正傷寒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明代 熊宗立은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447) 「一十六證傷寒歌」에서 吳恕의 『傷寒圖歌活人指掌』 「傷寒正名十六件」을 대체로 따라 傷寒證 16종(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風濕, 濕溫, 風溫, 溫毒, 中暈, 熱病, 溫病, 晚發, 瘧病, 溫

122) 金禮蒙. 醫方類聚(vol. 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54.

123)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1141.

124) 周命新. 醫門寶鑑(上). 서울. 一社. 1991. p.40.

125) 康命吉. 濟衆新編(韓國醫學大系 vol. 18). 서울. 麗江出版社. 1988. pp.19-23.

126) 金永勳 저. 李鍾馨 편.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84. p.85.

127) 姜鎭春. 簡明傷寒學. 서울. 도림출판사. 1995. pp.10-18.



瘡, 疫癘)을 제시하였는데, 溫疫과 壞病 대신에 風濕과 晚發을 포함시켰다.

그의 16종 분류는 『醫學入門』 正傷寒의 병명분류(24종)와 비교하면 14종(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中暈, 風濕, 濕溫, 風溫, 溫瘧, 熱病, 晚發, 瘧病, 溫毒)이 겹친다. 그러나 그는 이 16종을 正傷寒이라고 부르지 않고 ‘傷寒證’이라고 불렀다.

### ② 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 병명분류

王震에 이르러 熊宗立의 ‘一十六證 傷寒’을 ‘正傷寒 病名 16種’으로 改名하고, 正傷寒은 仲景 傷寒의 正名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王震은 ‘正傷寒’이란 張仲景이 傷寒이라고 여긴 병명이라는 뜻이다. 그가 말한 ‘張仲景의 傷寒’은 광의의 傷寒에 해당된다.

이처럼 王震은 熊宗立이 ‘證’이라고 언급한 것을 ‘病名’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證과 病의 차이를 인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熊宗立은 16종을 모두 ‘證’으로 命名한 데 반해, 王震은 16종 중 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中暈, 風濕, 濕溫, 風溫, 溫瘧, 熱病, 晚發, 溫毒은 ‘病因’으로 正傷寒 병명을 삼았고 瘧病은 ‘症’으로 正傷寒 병명을 삼았다.

王震이 광의의 傷寒으로서 正傷寒의 병명분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그 병명분류 중 14종이 『醫學入門』의 분류와 겹친다는 점으로 보아, 王震의 『傷寒證治明條』는 『醫學入門』 傷寒編 중 ‘正傷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李梴이 인식한 正傷寒은 王震의 『傷寒證治明條』 「正傷寒病名一十六種治例論」의 뜻을 계승하여 王震의 正傷寒 병명 16종 중 14종(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中暈, 風濕, 濕溫, 風溫, 溫瘧, 熱病, 晚發, 瘧病, 溫毒)에 다시 合病, 併病, 兩感, 中霧露와 濕病 중 寒濕, 濕痺와 溫病 중 春溫, 溫疫과 별도로 水證, 黃證의 10종을 추가 분류하였다.

『傷寒證治明條』에 다시 추가한 正傷寒 병명 10종 중 兩感은 『注解傷寒論』에서 처음 正傷寒으로 분류한 것이고, 溫疫은 일찍이 『類證活人書』에서 처음 분류한 것이며, 나머지 8종에 대한 문헌근거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合病, 併病, 中霧

露, 寒濕, 濕痺, 春溫, 水證, 黃證의 正傷寒 병명 8종은 李梴이 독자적으로 正傷寒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 병명분류

明代 陶華가 『傷寒全生集』(1369-1463), 『傷寒六書』(1445)에서 협의의 傷寒 개념의 正傷寒을 명확히 설명한 뒤로 醫書 대부분에서 正傷寒을 협의의 傷寒으로 인식함에 따라 正傷寒의 병명분류는 대체로 傷寒, 傷風에 지나지 않았으며, 간혹 『證治準繩』, 『傷寒論綱目』, 『傷寒指掌』, 『通俗傷寒論』 등에서 非時暴寒 또는 寒疫을 正傷寒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특히 『傷寒指掌』에서 瘧病까지 正傷寒으로 인식하였다.

### ④ 우리나라의 인식

우리나라는 『醫方類聚』(1445)에서 正傷寒(협의의 傷寒)에 時氣, 瘧氣, 小兒正傷寒을 포함하였으며,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를 인용하여 傷寒(광의, 협의 모두 해당)을 中風, 濕溫, 傷寒, 熱病, 溫病의 5종으로 분류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협의의 傷寒으로서 正傷寒을 언급하였지만, 卷三 寒(下) 말미 「傷寒有十六」에서 『難經·五十八難』의 ‘傷寒有五’를 인용하고, 동시에 傷寒 16종(傷寒, 傷風, 傷寒見風, 傷風見寒, 中濕, 風濕, 濕溫, 風溫, 溫毒, 中暈, 熱病, 溫病, 晚發, 瘧病, 溫瘧, 疫癘)과 濕病 5종(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과 溫病 5종(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 등 26종을 제시하였다.

이 중 傷寒 16종은 熊宗立의 『類編傷寒活人書指掌圖論』(1447) 「一十六證傷寒歌」, 王震의 『傷寒證治明條』(明代) 「正傷寒病名一十六種治例論」을 따른 것이며,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의 濕病 5종과 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의 溫病 5종은 『醫學入門』의 正傷寒 분류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 분류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許浚은 『醫學入門』에서 별도로 덧붙인 水證, 黃證은 「傷寒有十六」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水證, 黃證이 正傷寒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許浚은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卷三 寒(下) 말미에 참고삼을 목적으로 『醫學入門』등의 正傷寒(광의의 傷寒) 분류를 일부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周命新은 『醫門寶鑑』(1724)에서 협의의 傷寒으로 『醫學入門』의 正傷寒을 간주하였기 때문에 『醫學入門』의 正傷寒 병명 24종 중 暑病, 風溫, 濕溫을 類傷寒으로 변경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醫學入門』의 正傷寒 병명 24종(傷寒, 傷風, 傷風見寒, 傷寒見風, 合病, 併病, 兩感, 中霧露, 中暑·中喝, 熱病, 晚發, 冬溫, 瘧瘧)의 14종과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의 5종 濕病과 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의 溫病 5종과 水證, 黃證 2종) 중에서 寒邪에 속하지 않는 것은 暑病, 風溫, 濕溫 외에도 熱病, 晚發, 冬溫, 瘧瘧과 風濕, 寒濕, 中濕, 濕痺의 4종 濕病과 春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의 溫病 4종과 水證, 黃證 2종이 더 있다는 점을 그는 간과하였다. 또한 그는 砂症을 類傷寒 중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俞根初의 『通俗傷寒論』(清代)에서 傷寒兼痧<sup>128)</sup>를 類傷寒 중 하나로 분류한 것과 비견할 수 있다.

康命吉은 『濟衆新編』(1799)에서 『東醫寶鑑』을 발췌 인용하여 傷寒病的 病證과 脈證을 제시할 때, 『東醫寶鑑』「外感挾內傷」에서 본래 언급했던 正傷寒을 인용하지 않았다.

金永勳, 李鍾馨은 『晴崗醫鑑』(1984)에서 正傷寒 병명분류를 직접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正傷寒에 대한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傷寒(麻黃湯證), 傷風(桂枝湯證) 2종에 불과하다.

최근 1980년~1990년에 『醫學入門』 正傷寒의 병명분류(24종)를 따른 서적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外感科學』, 『傷寒學』, 필사본에서는 『醫學入門』의 병명분류를 그대로 따랐다. 이 서적들은 『簡明傷寒論』을 제외하고 『醫學入門』 正傷寒의 병명분류와 동일하다.

반면에 『簡明傷寒學』에서는 『醫學入門』의 24종을 傷寒, 傷風, 傷風見寒, 傷寒見風, 風溫,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溫疫, 寒疫, 冬溫, 溫瘧, 頭痛, 顛痛, 疫

癘 등 17종으로 바꾸었는데, 바꾼 기준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서적들의 正傷寒 개념(運氣로 해석)은 『醫學入門』의 正傷寒 개념(광의의 傷寒)과 동일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正傷寒의 병명분류는 『醫學入門』을 따르고 있어서 기준과 병명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醫學入門』의 본뜻대로 正傷寒의 병명분류를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東醫寶鑑』에서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인식하였기에 『醫學入門』등의 正傷寒(광의의 傷寒) 분류 중 일부를 소개하는 데 그쳤고, 『醫門寶鑑』에서 『醫學入門』 正傷寒 24종 중 暑病, 風溫, 濕溫을 類傷寒으로 변경하여 분류하였고, 최근에는 運氣學의 관점으로 正傷寒 병명분류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 ⑤ 正傷寒 병명분류의 기원과 변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正傷寒(광의)에 속하는 병명들이 『類證活人書』에서 처음 제시된 뒤 『醫學入門』의 正傷寒 분류 24종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시대순서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는 正傷寒 病名으로 최초로 분류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梴이 正傷寒으로 분류한 병명 24종은 일찍이 『類證活人書』의 광의의 傷寒 병명(12종)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成無己의 『注解傷寒論』(10종), 熊宗立의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16종)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직접적으로는 『傷寒證治明條』 「正傷寒病名一十六種治例論」의 正傷寒 분류(16종)를 따라서 그의 16종 중 14종을 포함시키고, 다시 李梴 자신의 기준에 따라 水證, 黃證을 포함한 10종을 추가, 분류하였다. 그 중 8종(合病, 併病, 中霧露, 寒濕, 濕痺, 春溫, 水證, 黃證)은 李梴이 최초로 正傷寒으로 분류한 것이다.

#### ⑥ 水證, 黃證을 正傷寒 병명분류에 덧붙인 근거

李梴은 正傷寒에도 六氣 중 燥를 제외한 風, 寒, 暑, 濕, 火(溫)가 원인이 된 外感病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水證, 黃證을 덧붙였다.

‘附水證, 黃證’의 문구로 보면, 그는 水證, 黃證을 그 나머지(傷寒, 傷風, 傷風見寒, 傷寒見風, 合病, 併病, 兩感, 中霧露, 中暑·中喝, 熱病, 晚發, 冬溫, 瘧瘧

128) 俞根初. 通俗傷寒論. 臺北. 旋風出版社. 1976. p.213.

Table 4. categorizations of cold damage in a broad sense before *Introduction to Medicine*

	서적 傷寒 病名	類證活人書	注解傷寒論	傷寒圖歌活人 指掌	類編傷寒活人 書括指掌圖論	傷寒證治明條	醫學入門
	正傷寒 명칭 사용	×	×	×	×	○	○
1	傷寒	●	○	○	○	○	○
2	傷風	●	○	○	○	○	○
3	中濕	●		○	○	○	○
4	濕溫	●		○	○	○	○
5	風溫	●	○	○	○	○	○
6	溫瘧	●	○	○	○	○	○
7	熱病	●		○	○	○	○
8	瘧病	●		○	○	○	○(+瘧)
9	溫毒	●	○	○	○	○	○(溫毒發斑)
10	溫病	●	○	○	○	○	
11	疫癘			●(時行疫癘)	○	○	
12	時行寒疫		●				
13	溫疫	●		○			○
14	傷寒見風			●	○	○	○
15	傷風見寒			●	○	○	○
16	中暈	●(中暑)	○(暑病)	○(中暑)	○	○	○(+中暑)
17	風濕				●	○	○
18	晚發				●	○	
19	冬溫		●				○
20	合病						●
21	併病						●
22	兩感		●				○
23	中霧露						●
24	寒濕						●
25	濕痺						●
26	春溫						●
27	水證						●
28	黃證						●
29	壞病			●			
	합계	12	10	16	16	16	24

의 14종과 風濕, 濕溫, 寒濕, 中濕, 濕痺의 5종 濕病과 春溫, 風溫, 溫疫, 溫瘧, 溫毒發斑의 溫病 5종)와 약간 다르게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水證과 黃證은 병명이 아니라 ‘病證’으로 인식하고, 후자는 病證이 아니라 ‘병명’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正傷寒 22개 병명 외에 水證, 黃證 2종의 증상을 正傷寒으로 분류한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醫學入門』에서 水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傷寒

論』의 小青龍湯(表水證), 十棗湯(裏水證), 大陷胸丸(水結胸證), 茯苓桂枝湯(乾嘔飢逆), 眞武湯, 五苓散(水逆證), 文蛤散(誤治證)을 제시하고, 별도로 小半夏湯(水結胸證), 赤茯苓湯(乾嘔飢逆)과 浮腫을 치료하는 牡蠣澤瀉湯, 防己黃芪湯, 朮附湯을 제시하였다<sup>129)</sup>.

129)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25-1126.

또한 『醫學入門』에서 黃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傷寒論』의 茵陳蒿湯(瘀熱發黃), 麻黃湯連赤小豆湯(寒濕發黃), 梔子柏皮湯(中濕發黃), 麻黃湯(發黃體痛), 小柴胡湯加茵陳(傷風發黃), 大柴胡湯加茵陳(傷風發黃 甚者), 理中湯加茵陳(內傷中寒發黃), 五苓散加茵陳(穀疸), 四逆湯加茵陳(陰證發黃), 大陷胸湯加茵陳(結胸發黃), 半夏瀉心湯加茵陳(痞氣發黃) 등을 제시하고, 별도로 濕熱發黃을 치료하는 茵陳五苓散(『金匱要略』), 茵陳三物湯, 陶氏茵陳湯과 中濕發黃을 치료하는 神朮散, 防己黃芪湯과 發黃 초기에 사용하는 瓜蒂散, 茵陳五苓散, 酒蒸黃連丸을 제시하였다<sup>130)</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李梴은 『傷寒論』에서 제시된 병명, 병증은 廣의의 傷寒에 해당되며, 이는 張仲景의 본뜻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浮腫을 제외한 대부분의 水證의 證治와 發黃의 證治의 기본이 『傷寒論』에서 모두 나왔으므로 水證과 黃證이 비록 병명은 아니지만 正傷寒 병명으로 덧붙여 분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자면, 李梴은 「正傷寒」에서 임상 활용에 완벽을 추구하고자 正傷寒의 병명 24종마다 그 개념, 원인, 증상, 治法, 처방, 預後 등을 두루 갖추었는데<sup>131)</sup>, 이는 『傷寒論』이 오직 狹의의 傷寒病만 다룬 서적이 아니라 溫病, 暑病, 熱病, 濕病 등을 두루 다룬 서적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傷寒病 전체(廣의의 傷寒)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분류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제방식은 후세의 많은 醫書에서 溫病, 暑病, 濕病 등을 傷寒과 분리하여 편제한 방식과 매우 대비가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인식한 正傷寒(廣의의 傷寒) 개념은 중국에서는 후세에 거의 쓰이지 않고 대신 陶華의 正傷寒(狹의의 傷寒) 개념이 널리 쓰였으며, 그로 인해 正傷寒 병명분류도 수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본 논문에서 자료로 삼은 醫書

들로부터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개념과 병명분류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傷寒을 狹의의 傷寒과 廣의의 傷寒으로 구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즉 기존에 廣의의 傷寒과 狹의의 傷寒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傷寒’이라고 불렀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 적절한 용어가 필요한데, ‘正傷寒’이라는 용어가 ‘진짜 傷寒’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에 廣의의 傷寒 속에는 溫病, 熱病, 濕病 등 다양한 병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런 병들을 ‘正傷寒’으로 부르면 正傷寒(廣의의 傷寒)에 포함되어 있는 傷寒(狹의의 傷寒)을 구별하여 지칭할 용어가 마땅히 있지 않게 된다.

둘째, 正傷寒 병명분류가 24종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이론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임상 측면에서는 활용하기에 매우 번거롭다. 이와 같은 분류는 비록 張仲景의 뜻(廣의의 傷寒)을 계승하였다는 정통성을 드러낼 수는 있더라도, 후세 醫家들이 임상에서 활용할 때 편리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醫學入門』을 翫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正傷寒 개념과 분류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서 다만 正傷寒 병명분류를 許浼이 참고로 소개하였고, 周命新은 『醫學入門』의 正傷寒을 狹의의 傷寒으로 간주하여 그 正傷寒 병명 24종 중 暑病, 風溫, 濕溫을 類傷寒으로 변경하여 분류하였다.

## IV.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李梴의 『醫學入門』(1575) 傷寒篇의 正傷寒의 명칭, 개념이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병명분류가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正傷寒의 명칭은 비록 金代 劉完素의 『傷寒直格』(1186)에서 비롯되었으나 伏氣溫病 중 하나로 여겼기에 『醫學入門』 正傷寒의 개념(廣의의 傷寒)과

13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26-1127.

13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09-1128.

다르며, 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 명칭은 明代 王震의 『傷寒證治明條』(1447)에서 비롯되었지만 正傷寒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2. 宋代 朱肱의 『類證活人書』(1108)에서 일찍이 傷寒(협의), 溫病, 熱病을 모두 傷寒(광의)이라고 불러서 광의의 傷寒과 협의의 傷寒 개념을 모두 제시하였지만 正傷寒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그 이후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錢禮禮의 『傷寒百問歌』 등 적지 않은 서적에서 이런 관점을 따랐다.

『醫學入門』은 王震의 『傷寒證治明條』를 따라서 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인식하였지만, 이후로 그 개념을 따른 서적은 清代 呂震名的 『傷寒尋源』(1850)에 불과하다.

한편 戴元禮가 『證治要訣』에서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陶華가 『傷寒全生集』(1369-1463), 『傷寒六書』(1445)에서 正傷寒(협의)의 명칭과 개념, 治法을 비로소 자세히 설명하였다. 陶華의 설명 뒤로 대부분의 醫書에서 그 관점을 따랐으며, 이외에 正傷寒(협의)은 足經으로만 전한다거나 서북방에만 발견된다는 등의 특성도 제시되었다. 협의의 傷寒으로서의 正傷寒은 眞傷寒, 眞正傷寒, 大傷寒 등으로 불렸고, 몇몇 서적에서 그 처방(麻黃湯, 桂枝湯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별도로 四時의 暴寒으로 발생한 병(非時暴寒) 또는 寒疫을 正傷寒 또는 大傷寒으로 부르기도 하였고(『證治準繩』, 『傷寒論綱目』, 『傷寒指掌』, 『通俗傷寒論』 등), 瘧病까지 正傷寒으로 여기기도 하였다(『傷寒指掌』).

우리나라는 『東醫寶鑑』(1610)에서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언급하고 正傷寒(광의) 병명분류를 참고로 소개하였으며, 『醫門寶鑑』(1724)에서 『醫學入門』의 正傷寒(광의)을 협의의 傷寒으로 간주하였다.

3. 李梴이 인식한 正傷寒이란 자연계의 六氣가 원인이 된 外感病 전체(단, 燥病은 제시되지 않음)를 의미한다. 이는 傷寒, 溫病, 熱病 등을 통칭하므로 광의의 傷寒에 해당되지만 그의 正傷寒 병명분류

24종에는 병명(22종) 외에 증상(水證, 黃證 등 2종)까지 덧붙여 있어서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다.

4. 李梴의 正傷寒 병명분류 24종은 『類證活人書』의 광의의 傷寒 병명(12종)에서 비롯하였지만, 직접적으로는 『傷寒證治明條』의 正傷寒 병명분류(16종)를 계승하였다. 그는 『傷寒證治明條』 正傷寒 16종 중 14종을 수용하고, 다시 水證, 黃證을 포함한 10종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 8종(合病, 併病, 中霧露, 寒濕, 濕痺, 春溫, 水證, 黃證)은 李梴이 독자적으로 正傷寒으로 분류한 것이다.

게다가 李梴은 正傷寒의 병명 24종마다 그 개념, 원인, 증상, 治法, 처방, 預後 등을 두루 갖추어서 『傷寒論』을 임상 활용에 완벽을 추구하고자 改變하였고, 광의의 傷寒이 仲景의 본의라는 관점을 지지하여 傷寒病(광의)에 대한 체계와 분류를 세우고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쉽게도 임상적 편의성이 떨어지므로 『醫學入門』 이후 중국에서 그의 병명분류는 채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東醫寶鑑』에서 협의의 傷寒으로 正傷寒을 인식하였기에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의 正傷寒(광의의 傷寒) 병명분류를 참고로 인용하였으며, 『醫門寶鑑』에서 『醫學入門』 正傷寒 분류 24종 중 暑病, 風溫, 濕溫을 類傷寒으로 변경, 분류하였다. 최근 正傷寒을 運氣學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醫學入門』과는 그 개념과 분류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醫學入門』의 뜻을 계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References

1. Bian Q original work. Wang JS, et al. annot.. Nanjing Ji Zhu. Taibei. Taiwan Zhong Hhua Shu Ju. 1985.
2. Cheng GP. (Zeng Pi)Yi Xue Xin Wu. Taibei. Wen Guang Tu Shu. 1982.
3. Cheng WY. Zhujie Shang Han Lun(in Cheng Wuyi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5.
4. Dai YL. Mi Chuan Zheng Zhi Yao Jue Ji Lei

- Fang.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9.
5. Gong TX. Gu Jin Yi Jian(in Gong Tingxian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6. Gong TX. Wan Bing Hui Chun(in Gong Tingxian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7. Heo J original work. Dong Ui Mun Heon Yeon Gu Sil trans.. (Chinese-Korean new added translation)Donguibogam. Seoul. Beob In Mun Hwa Sa. 2012.
  8. Huang PZ. Ming Yi Zhi Zhang.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6.
  9. Jin JP annot.. Sang Han Jik Gyeong Non Bang(in Geum Won Sa Dae Ga Ui Hak Jeon Seo(vol. 1). Seoul. Beob In Mun Hwa Sa. 2007.
  10. Ju MS. Uimunbogam(vol. 1). Seoul. Il Jung Sa. 1991.
  11. Kang JC, Kim HG. study on cold damage. Seoul. Il Jung Sa. 1992.
  12. Kang JC. Brief study on cold damage. Seoul. Dorim Publishing Co.. 1995.
  13. Kang MG. Jejungsinyeon(Traditional Korean medicine system. vol. 18).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14. Kim HG, Kang JC. Oegamgwahak. unknown place. Daehan Print & Publishing Co.. 1988.
  15. Kim HG. (I) introduction, True-cold damage(in Prof. Kim's lecture note about 『The part of Cold damage in Uihakipmun』). unknown place. unknown publisher(manuscript). unknown year.
  16. Kim YH original work. Lee JH edit.. Cheongganguigam. Seoul. Seongbosa. 1984.
  17. Kim YM. Ui Bang Lyu Chwi(vol. 11).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1.
  18. Kim YM. Ui Bang Lyu Chwi(vol. 2).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1.
  19. Kim YM. Ui Bang Lyu Chwi(vol. 3).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1.
  20. Li C original work. Jin JP trans.. (Chinese-Korean new translation) Pyeonju Uihakipmun. Seoul. Beob In Mun Hwa Sa. 2009.
  21. Li C. Uihakipmun(vol. 2). Seoul. Namsandang. 1991.
  22. Lin PQ. Lei Zheng Zhi Cai. Taipei. Xuanfeng Publishing Co.. 1978.
  23. Liu K. Song Feng Shuo Yi.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7.
  24. Lu ZM. Shang Han Xun Yuan(in Zhen Ben Yi Shu Ji Cheng. vol. 4). Seoul. Uiseongdang. 1994.
  25. Qian H. Shang Han Su Yuan Ji(in Xu Xiu Si Ku Quan Shu. vol. 986). Shanghai. Shanghai Guji Publishing Co.. 2002.
  26. Qian WL. Shang Han Bai Wen Ge. Beijing. Zhongguo Shudain. 1991.
  27. Qian Yi. Xiao Er Yao Zheng Zhi Jue(in Qian Yi and Liu Fang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2005.
  28. Qin ZZ. Shang Han Da Ba.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2.
  29. Shen JO. Shang Han Lun Gang Mu(in Shen Jinao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30. Sun WY. Dan Tai Yu An(in Zhong Guo Yi Xie Zhen Ben Cong Shu). Shanghai. Shanghai Ke Xue Ji Shu Publishing Co.. 1984.
  31. Tao JA. Shang Han Liu Shu.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90.
  32. Tao JA. Shang Han Quan Sheng Ji. Zhengzhou. Zhong Yuan Nong Min

- Publishing Co.. 2012.
34. Wang KT. Zheng Zhi Zhun Sheng · Shang Han(in Wang Ken Tang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34. Wang MY. Wen Re Jing Wei(in Wang Mengying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35. Wang Z. Shang Han Zheng Zhi Ming Tiao(vol. 2)(in Xi Jian Gu Dai Yi Ji Chao(Gao) Ben Cong Bian. vol. 9). China. Quanguo Tushuguan Wenxian micro-duplication center. 2002.
36. Wu Q. Yi Zong Jin Jian · Ding Ding Shang Han Lun Zhu. Beijing. Ren Min Wei Sheng Publishing Co.. 1982.
37. Wu S. Shang Han Tu Ge Huo Ren Zhi Zhang(Si Ku Wei Shou Ji Kan vol. 4-25). Beijing. Beijing Publishing Co.. 2000.
38. Xiao J. Xuan Qi Jiu Zheng Lun. Beijing. Zhong Yi Gu Ji Publishing Co.. 1983.
39. Xiong ZL. Lei Bian Shang Han Huo Ren Shu Kuo Zhi Zhang Tu Lun(in Yu Wai Han Ji Zhen Ben Wen Ku. vol. 4). Chongqing. Xinan Shifan University Publishing Co.. Beijing. Ren Min Publishing Co.. 2013.
40. Xu CF. Gu Jin Yi Tong Da Quan(vol. 1). Seoul. Aulloseu Publishing Co.. 1994.
41. Yoon CY. Han Jung Ui Hak Gak Ga Hak Seol. Daejeon. Jumin Publishing Co.. 2006.
42. Yu GC. Tong Su Shang Han Lun. Taipei. Xuanfeng Publishing Co.. 1976.
43. Zhang JB. Jing Yue Quan Shu(in Zhang Jiebin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44. Zhang Lu. Zhang Shi Yi Tong(in Zhang Lu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 Guo Zhong Yi Yao Publishing Co.. 1999.
45. Zhao XK. Yi Guan. Seoul. Jeongdam Publishing Co.. 1993.
46. Zhu G. Zeng Zhu Lei Zheng Huo Ren Shu. Seoul. Namsandang. 1987.
47. Cha WS, Kim NI. The Study of 『Euhak-Ipmun』 Formatio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1999. 22(1).
48. Chen BC. Document research on parenteric fever. master's thesis from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06.
49. Kim KS, Jo HJ, Kim JB. Comparison reference books and details on text of Yukkyoung(六經) in UihakYimmun-Sanghanpyun(醫學入門·傷寒篇).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 21(2).
50. Kim SU. The research on the reference books of 「the chapter of First symptom(初證)」 in 『The part of Cold damage in Uihakipmun(醫學入門·傷寒篇)』.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4. 27(1).
51. Zhu XJ. Document research on parenteric fever in Shanghanzabinglun(傷寒雜病論). master's thesis from Hebei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11.
52. Wang H. Shang Han Lun Bian Zheng Guang Zhu.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Zhonghauyidian(Traditional Chinese Edition)[CD-ROM]. Shanghai.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2003.
53. Wu KN. Shan Han Zhi Zhang.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Zhonghauyidian(Traditional Chinese Edition)[CD-ROM]. Shanghai.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2003.
54.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ictionary. Seoul. Jeongdam Publishing Co.. 2010. NAVER. [cited at 22th February, 2016]. Available from:

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4737&cid=51276&categoryId=51276>